

## 세미나와 창립총회 가져



강원도지역에 미처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그동안 충청, 경기협회에 소속되거나 활동이 없던 강원지역 환경관리인들이 원주환경지청 관할(강원도의 지역 원주환경지청 관할업소 포함) 147개 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4월 13일, 원주공업단지 근로자 복지회관 강당에서 본연합회 산하 강원환경관리인 협의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본지역 환경관리인들은 지난해 6월경부터 소규모 관리인모임을 연합, 공단내의 10여명 되는 관리인들이 본협의회 창립을 논의해 오던중, 원주환경지청의 차승환지도과장의 본연합회 산하의 정식 협의회로 구성할 것에 대한 권유와 행정적인 협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이날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이날 격려사에서 정국현 원주환경지청장은 본협의회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주리라고 믿으며, 환경관리인들간 친목도모 및 기술교류의 장이 되길 당부했고, 본연합회 이용운회장은 본연합회의 연혁과 박운석관리인 구속사건을 언급, 힘있는 본연합회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어진 세미나는 차승환(원주환경지청지도과)과장의 「'88년

도 배출업체 지도점검 방향」, 이한원(원주환경지청지도과)씨의 「산소전도를 측정에 따른 폐수처리장 폭기System선정에 대한 고찰」, 강철식(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환경과장의 환경관리개선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가 있었다.

창립총회의 임원선출 결과, 회장에는 임시회장을 맡았던 강철식(삼양식품주식회사)씨가, 총무에는 양현숙(한일전기)씨가 선임되었다. 기타 임원들은 발기인들 중심의 재모임시에 선임하자고 일괄 위임하였다.

강철식회장은 소감의 말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여 응집력이 약한 단점을 가졌으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앞으로 원주지청과 협조하여 세미나 공동주최등 회원간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창립초기이므로 당분간은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본협의회의 방향을 밝혔다.

## 기술세미나와 창립총회개최

본연합회의 단합된 활동이 조직적이며, 실속있게 각 지역협의회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본연합회 대구·경북협의회 산하 포항지회가 지난 4월 16일 포항 YWCA회관에서 기술세미나를 열고, 이어서 창립협회를 갖기에 이르렀다.

이날 모임에는 본지역내의 환경관리인들과 환경관리기관 인사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에 앞서 본연합회 이용운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본연합회 고문박창근씨에서 「환경관리인의 역할과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으며, 이진용(대구환경지청)지도계장이 환경관리실무에 대하여 참석 환경관리인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회장으로는 삼화화성주식회사의 환경관리인인 서정식씨가 선임되었다.

## 회보관련 재판일지

—벌과금 30만원—

1987. 2. 5 월간 「공해안전」 강원민사장으로부  
터 언론기본법위반\* (본 회보 발행  
인 이용운 회장) 및 명예훼손\*\* (본  
연합회 박창근 고문)으로 구로경찰  
서에 고소당함.  
\*「본연합회보」가 정기간행물로 미등록된  
상태로 발행.  
\*\*'87년 1월 회보 「환경칼럼」에 「공해안  
전」에 대한 논평
1987. 3. 30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으로부터 이  
용운회장 벌과금 50만원 예납통보.  
(박창근고문은 무혐의 불기소처분)
1987. 4. 1 정식재판 청구
1987. 4. 25 본연합회 사회단체등록(환경청 제13호)
1987. 6. 30 본회보 문공부 정기간행물등록  
(라-3294)
- 1987.10.12 제1심 공판  
(본연합회고문 박중범변호사· 무료  
변론)
- 1987.1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벌과금 30만원 판결
- 1987.11.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항소
1988. 3.23 항소심 공판
1988. 4. 9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제1심과  
동일하게 판결(벌과금 30만원)

## 모범업체 견학성료

전국 각 지역협의회에 정보 및 기술교류의 분위  
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4월 17  
일의 2박 3일동안 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의(회장·  
최기식)가 주최한 환경관리 모범업체 견학이 성공



리에 완료되었다.

이번 견학에는 33업체의 37명이 참가하였고, 전  
국의 환경관리모범업체중 다섯 곳을 선정(진주제  
지(주), 광양제철소, 한일합성(주), 빙그레(주),  
고리원자력발전소)의 현장견학을 하였다.

견학에 참가했던 회원들은 꼭 짜여진 일정이었  
으나, 본협의회에서는 첫 시도된 행사로 실물학습  
효과도 높았으며, 회원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또는 함께 호흡하는 여행길에서 회원상호간의 친  
목을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 염색폐수처리 실무 Seminar 개최



본연합회 부산·경남협의회(회장·장준영)에서  
는 지난 4월 19일(화)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염색폐수처리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의 고문이신 김수  
생(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교수는 염색폐수처리

의 현재와 장래에 대하여 신공법인 AB(Activated Biosorption)처리방법 소개를 겸하여 강의하였고, 검색폐수방지시설 운영관리 사례를 임재호(반월검색공업 협동조합)기술과장이 운영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겸하여 강의함으로써, 현장관리인들에게 실질적도움이 컸으며, 질의 응답도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는 등 학계의 이론과 현장운영기술을 잘 조화시킨 알찬 내용이 오갔으며, 현장견학(대보섬유주식회사)을 통하여, 우수업체의 운영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효과도 가중된 결과를 얻었다. 세미나종료후 임원회의 평가회에서 약간씩 미비점도 지적되었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각 기술분야별 기술세미나를 피혁, 도금 등 문제점이 많은 순으로 분기별 1회정도 실시하여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힘쓰기로 하였다.

## 상반기세미나 실시



본연합회 인천협의회(회장·김봉석)에서는 '88 올림픽의 해를 맞이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관리인들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교류의 일환으로서 상반기 교육세미나를 지난 4월 15일 인천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빙된 박당우(서울환경지청) 지도과장은 「환경대책과 지도방향에 대해서」, 윤재룡(인천지방검찰청) 공해담당검사는 「환경관리인들에게 바란다」, 한명극(인천시청)환경지도계장은 「환경정책 및 시정방향」, 윤태일(인

하대학교)환경공학박사는 「산업폐수예의 접근」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해 주었으며, 400여명의 인원이 참석, 이를 경청하였다.

## 굴포천 환경정화 캠페인



본연합회 경기서부협의회(회장·권영호)는 지난 4월 16일 관내의 오염우심 하천인 굴포천(연장 10.3km)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류인 춘의천의 신흥정밀 정문에서 2개조를 편성, 하천을 따라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환경관리인 백여명을 비롯하여 지청, 시청 및 기타 인원 180여명이 참석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는데, 본협의회는 사전에 굴포천 정화추진기구를 조직하여, 오염물질배출현황을 파악하는 등 근본적인 하천오염원을 분석, 이날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 국립공원 정화사업실시

행락철을 맞아 범국민적 환경보전운동의 일환으로 본연합회 충청협의회(회장·조홍영)는 대전 환경지청과 합동으로 지난 4월 20일(수) 계룡산 국립공원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홍보전단 배포 및 자연보호 슬로건 등을 계곡 주요지점, 나무 등에 게시하며 대대적인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